

라오디게아 - 제5번

마지막 셋

Jeff Pippenger

2023-09-03

이상적으로는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은 같은 역사의 내적·외적 흐름을 나타내는 병행 상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마지막 세 교회와 마지막 세 인을 고려할 때, 역사의 점진적 전개는 그 상징들의 주요 주제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교회들을 병행 역사라는 맥락에서 적용할 때에는 역사 전개가 상징성의 필수 요소이지만, 마지막 세 교회와 세 인을 그것 자체로 하나의 상징으로 다룰 때에는 그렇지 않다.

상징으로서의 마지막 세 교회는 세 집단의 관계와, 여러 교회들로 대표되는 세 예배자 집단의 상호작용의 역학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 세 인은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식별한다. 엘리야는 14만 4천을, 모세는 의로운 죽은 자들을 대표한다.

그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는 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들 각 사람에게 흰 옷이 주어졌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동료 된 종들과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자신들과 같이 죽임을 당할 이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더 쉬라고 일렀다. 그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보라,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털로 짠 붉은 베처럼 검어지며 달은 피처럼 되었다. 하늘의 별들이 강한 바람에 흔들리는 무화과나무가 제철이 아닌 열매를 떨구듯 땅으로 떨어졌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려 접히듯 물러가고 모든 산과 섬은 제 자리에서 옮겨졌다.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부자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노예와 모든 자유인은 산의 동굴과 바위 틈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 달라. 이는 그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는가? 요한계시록 6:9-17.

화이트 여사는 다섯째 인이 "미래의 한 시기"를 다룬다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다섯째 인의 구절들은 암흑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살해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교황권을 언제 심판하실지를 묻고 있다. 그에 대한 답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 교황권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일요일 법령 위기 동안 교황권에 의해 또다시 죽임을 당하게 될 또 다른 무리의 교황권 순교자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계시록 6:9-11]. 여기에서 요한에게 보여 준 장면들은 실체가 아니라, 장차 미래의 한 시기에 있게 될 것들이었다." Manuscript Releases, 20권, 197쪽.

영감은 또한 하나님께서 교황권을 언제 심판하실지 알고자 하는 제단 아래의 영혼들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그 영광으로 온 땅을 밝히는 천사의 두 음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증한다.

"다섯째 인이 열렸을 때,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무리를 보았다. 그 후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묘사된, 충실하고 진실한 자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을 받는 장면들이 이어졌다. 요한계시록 18:1-5 인용." 원고 발표집, 제20권, 14쪽.

요한계시록 18장에서 가톨릭교에 대한 심판은 이중적인데, 그때 그곳에서 가톨릭교는 '마지막 날들'에 살해할 자들뿐만 아니라 교황 통치의 암흑기에 살해된 희생자들 때문에도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너희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그녀의 죄가 하늘에까지 미쳤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음이라. 그녀가 너희에게 보응한 대로 그녀에게도 보응하고, 그녀의 행위대로 그녀에게 갑절로 갚아 주라. 그녀가 채운 그 잔에 그녀를 위하여 갑절로 채워 주라." 요한계시록 18:4-6.

여섯째 인은 마지막 일곱 재앙 기간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성경의 전형적인 묘사 가운데 하나를 제공한다. 여섯째 인은 마지막 절에서 제기된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요한계시록 7장의 도입으로 마무리된다. 마지막 일곱 재앙이 임할 때 종결되는 일요일 법령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치로 서게 될 두 부류가 있다. 그 두 부류는 엘리야로 상징되는 십사만 사천과, 모세로 상징되는 "큰 무리"이다. 모세와 엘리야라는 이 두 상징은 세상 끝에 서는 자들로 이미 확인되었으니, 그들이 둘 다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었기 때문이다.

암흑시대의 교황권 순교자들의 첫 번째 무리는 흰 옷을 받았고, 그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들었던 두 번째 무리는 역시 흰 옷을 입는 "큰 무리"이다. 다섯째와 여섯째 인은 다섯째와 여섯째 교회의 병행 역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한 기치로 일어서는 두 무리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 두 무리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나오는 두 음성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이다. 그때 선포되는 그 메시지는 오순절의 역사와 재림운동 초기에 있었던 한밤중 외침의 역사로 예표된 성령의 부으심과 함께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 선포에 동참하는 천사는 자신의 영광으로 온 땅을 비출 것이다. 여기에는 전 세계적 범위와 전례 없는 능력을 지닌 사역이 예언되어 있다. 1840~44년의 재림 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난 일이었고, 첫째 천사의 기별은 전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 전해졌으며, 어떤 나라들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가장 큰 종교적 관심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에서 일어날 강력한 운동에 의해 능가될 것이다.

그 사역은 오순절의 날에 있었던 사역과 비슷할 것이다. 복음의 시작에 성령이 부어지며 '이른 비'가 주어져 귀한 씨가 돌아나게 되었듯이, 그 마무리 때에는 '늦은 비'가 주어져 추수가 익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를 계속 따라가면, 그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고, 그가 비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 같이 하시리라.' 호세아 6:3. '그러므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기뻐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고, 너희를 위하여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리라.' 요엘 2:23.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주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17, 21.

"복음의 위대한 사업은 그 시작을 특징지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보다 더 약한 나타나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의 시작 때 이른비의 부어 주심 가운데 성취되었던 예언들은 그 마침에 늦은비 가운데 다시 성취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며 바라보았던 '새롭게 하심의 때'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는 주 앞에서 새롭게 하심의 때가 올 때 너희 죄가 지워지게 하려 함이며, 또 주께서 예수를 보내시리라.' 사도행전 3:19, 20." 대쟁투, 611.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엘리야와 모세로 대표되는 두 부류를 소개하는 질문을 여섯째 인이 제기한 후, 일곱째 인이 열리고 그 두 부류 위에 임하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묘사된다. 주목할 것은, 그 묘사 속에 반 시간의 침묵이 있다는 점이다. 일곱째 인의 열림으로 상징되는 늦은 비의 부어주심에는 침묵의 기간이 포함된다.

그가 일곱째 인을 떼셨을 때 하늘에는 약 반 시간 동안 침묵이 있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고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다.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섰으며,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 위에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드리도록 그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한 그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 제단의 불로 그것을 가득 채워 땅에 던지니, 음성들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요한계시록 8:1-5.

The Great Controversy의 한 대목에서 방금 언급했듯이, 힘센 천사가 내려와 그의 영광으로 땅을 밝힐 때 늦은비가 부어지기 시작한다. 늦은비는 2001년 9월 11일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시작되었다.

이제 내가 뉴욕이 해일에 휩쓸릴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말이 들려옵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결코 없다. 나는 그곳에서 층층이 솟아오르는 거대한 건물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땅을 심히 흔드시려고 일어나실 때 얼마나 무서운 장면들이 벌어지겠는가! 그때 요한계시록 18장 1-3절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 전체는 이 땅에 닥칠 일에 대한 경고이다. 그러나 나는 뉴욕에 닥쳐올 일에 관하여 특별히 받은 빛은 없다. 다만 언젠가 그곳의 거대한 건물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뒤집히고 또 뒤엎어져 무너질 것을 안다. 내게 주어진 빛으로 나는 파괴가 세상에 임해 있음을 안다. 주께서 한마디만 하시고 그의 크신 능력이 한 번만 닿아도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장면들이 벌어질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6년 7월 5일.

2001년 9월 11일,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비의 쏟아부음은 엘리야와 모세로 대표되는 자들 위에 내리며, 그 안에는 침묵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어진 침묵의 시간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나타나는데, 거기서 세상을 괴롭게 하던 그 두 선지자, 곧 모세와 엘리야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삼 일 반이 지나 그들은 호렙의 동굴에서 나와 하늘로 올라갔다. 늦은 비의 역사 속에서 그 두 전령으로 대표되는 그 메시지는 죽임을 당해 거리에 내던져지지만, 그들이 부활할 때까지는 매장되지 않는다. 이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이제 봉인을 떼어 드러내고 계시는 핵심 진리들 가운데 하나이다.

마지막 세 개의 인은 엘리야와 모세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운동을 가리킨다. 그 운동은 죽고 다시 살아난다. 그것은 하나의 운동이다. 재림주의는 하나의 운동으로 시작되어, 그들이 윌리엄 밀러가 깨닫도록 인도받은 첫 번째 진리를 제쳐 둔 1863년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1863년에 그 운동은 끝났다. 그 해에 그들이 법적으로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알파와 오메가께서는 그분이 자신의 남은 백성을 하나의 운동으로 시작하셨다면 또한 그것을 하나의 운동으로 끝내실 것이라고 단언하신다.

이제 우리는 일곱 교회와 일곱 인에 대한 개요를 마쳤다. 마지막 세 인에서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속받은 자들의 두 부류를 본다. 그 인들은 모두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권세를 가진 천사에 대해 증거한다. 그가 2001년 9월 11일에 강림했을 때, 두 부류의 구속받은 자들이 정결의 과정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은 재림운동의 시작에서 예표된 바와 같이 말기 재림운동 내부의 예배자들을 두 부류로 드러내고 분리하도록 고안된 것이었다. 다니엘은 한 부류를 악인이라 부르며 그들은 지식의 증가를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깨닫는다고 밝힌다. 마태는 봉인이 풀린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녀를 미련하다고 알려 준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한밤중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지식의 증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은 각각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로 대표된다. 라오디게아의 악하고 미련한 처녀들은 주의 입에서 토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들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곧 그분의 품성을 받는다. 여섯째 교회인 빌라델비아가 지혜로운 자들을 대표한다면, 어찌하여 일곱째 교회인 라오디게아가 악인을 대표하는가? 그렇다면 순서가 어긋난 것이 아닌가? 물론 그 해답은 알파와 오메가에 의해 해결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불린 고대 이스라엘의 시작에서, 모세는 그 백성 말기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모세가 참으로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실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들을지니라.' 하였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백성 가운데에서 멸망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22, 23.

하나님께서 이름하여 부르신 첫 번째 백성의 끝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 길을 예비한 엘리야 사자였다. 그 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이어 하늘 성소의 첫째 칸인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름하여 부르신 두 번째 백성, 곧 현대 이스라엘의 시작에, 윌리엄 밀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길을 예비한 엘리야 사자였다. 그때 예수께서 갑자기 지성소에 들어가 심판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름하여 부르신 두 번째 백성의 끝에, 마지막 엘리야 사자가 그리스도께서 살아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륜을 시작하시고, 하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재림하시도록 길을 예비하였다.

윌리엄 밀러는 메신저뿐만 아니라 그가 연관되었던 운동도 상징한다.

떨리는 마음으로 윌리엄 밀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풀어 밝히기 시작했고, 예언들을 따라 청중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끌고 갔다. 그는 노력할수록 더욱 힘을 얻었다. 세례 요한이 예수의 초림을 선포하고 그 오실 길을 예비했듯이, 윌리엄 밀러와 그에게 동참한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을

선포하였다....

"수천 명이 윌리엄 밀러가 전한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인도되었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세워졌다." 초기문집, 229, 230, 233.

고대 이스라엘의 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 그는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부패한 교육을 받았고, 그의 성품에서 이집트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이 필요했다. 출생 후 40년이 되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자로 택함받았음을 깨달은 모세는 자기 힘으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 40년 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했다. 마침내 그 부르심을 받아들인 후에도 그는 죽음의 위협을 받기까지 아들의 할례 명령을 무시했다. 약속의 땅 경계에서 그는 거역하여 반석을 두 번째로 쳤다. 고대 이스라엘의 시작에서 모세는 라오디게아인의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높고 거룩한 소명을 여전히 성취했으며, 그 가운데에는 고대 이스라엘의 끝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도 포함되었다.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은 아닌 자들과 씨름하신 그리스도는 빌라델비아인의 성품을 나타내셨다. 고대 이스라엘의 시작에서 모세는 금과 안약과 흰 옷이 필요한 라오디게아인을 대표했다.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는 빌라델비아인이다.

재림주의의 시작에, 사데에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으로 표상된 윌리엄 밀러는 빌라델비아인을 표상했으며, 그와 관련된 운동도 마찬가지였다. 재림주의의 끝에, 1989년에 끝의 때를 인식한 그 운동은 모세만큼이나 라오디게아적이었다. 밀러주의 운동은 첫 번째 운동이 빌라델비아의 때에 빌라델비아인들에 의해 성취되고 마지막 운동이 라오디게아의 때에 라오디게아인들에 의해 성취된다는 예언적 단서를 달고, 퓨처 포 아메리카 운동을 예표한다.

나는 Future for America의 역사와 관련된 그 누구보다도 1989년부터의 이 운동의 예언적 역사를 더 많이 목격한 증인이며, 1989년부터 이어진 그 역사를 내가 확실히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인으로서 직접 걸어왔음을 증언한다. 그 길에는 내 증언을 지지해 줄 많은 영혼들이 있다. 또한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재림교회 말기에 그 운동과 관련되었던 이들 또한 확실한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인들이었다고 증언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호칭된 백성은 라오디게아인으로 시작해 빌라델비아인이 되며, 빌라델비아인으로 끝난다. 두 번째로 호칭된 백성은 빌라델비아인으로 시작해, 빌라델비아인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라오디게아인으로 끝난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표지이다.

지도자와 그와 함께한 이들의 비참하고 가련한 영적 눈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989년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예언적 이정표들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셨다. 지도자와 그와 함께한 이들의 영적 별거벗음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이 풀기에 합당하다고 보신 진리들의 봉함을 푸시는 일을 인도하셨다. 그분의 '진리'와 결코 분리되지 않는 그분의 자비 안에서, 그분은 라오디게아인이 죽고 이후에 빌라델비아인으로 부활하도록 하는 정결의 과정을 마련하셨다. 그 죽음과 부활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저자들에게 의해 예표되었는데, 그들 둘 다 상징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였다.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져 맞이한 죽음에서 부활하였고,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의 굴에서 맞이한 죽음에서 부활하였다. 그러므로 하나이기도 한

두 책은 지금 봉함이 풀리고 있는 메시지의 일부로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상징에 강조점을 둔다.

조사심판의 '마지막 날들'에 일어난 그 운동은(그것은 밀러주의 운동으로 예표되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와 그 운동이 죽임을 당한 뒤 다시 부활하도록 계획하셨다. 일곱 교회의 맥락에서, 라오디게아는 2020년 7월 18일에 죽임을 당했으며, 다가오는 주일법 이전에 빌라델비아로서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 그 운동은 일곱 교회에 속하지만 여덟째가 될 것이다. 그 운동은 여덟째, 곧 일곱에 속한 것일 것이다.

이 예언적 비밀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 우리는 지금 짐승의 형상의 시험에 들어가고 있는데, 화이트 자매가 우리에게 알려주었듯이 그것은 일요일 법에 앞서 오는 시험이다. 하나님의 인은 그 시대의 필라델피아인들에게 일요일 법의 때에 인쳐진다. 그러나 그들은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오는 짐승의 형상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주님께서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짐승의 우상이 형성될 것임을 내게 분명히 보여 주셨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큰 시험이 되어, 그 시험으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입장은 모순이 한데 뒤엉켜 있어 속아 넘어갈 사람은 극히 적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주제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3:11-17, 인용됨].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시험이다. 그의 율법을 준수하고 거짓된 안식일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입증한 모든 사람들은 주 하나님 여호와와 기 아래에 설 것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진리를 포기하고 일요일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매뉴스크립트 릴리시즈, 제15권, 15.

현재의 역사에서, 한때 공화주의와 개신교로 알려졌던 두 뿔은 이미 민주주의와 배도한 개신교로 바뀌었다. 그 두 뿔이 완전히 결합되면 하나의 권세, 하나의 뿔이 된다.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형상에 맞서 경고하도록 참된 개신교의 뿔을 드러내어 높이 들어 세우실 것이다. 미국이 성경 예언에서 말하는 여섯째 왕국이 아니게 될 때까지, 그 두 뿔은 서로 병행한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용(유엔), 짐승(교황권), 거짓 선지자(미국)의 삼중 연합이 일곱 머리에 속한 여덟째 머리의 권세라고 밝힌다. 그 일곱 머리는 성경 예언에 나오는 왕국들을 가리키며, 바벨론으로 시작하여 메대-바사, 그리스, 그리고 이교 로마로 이어진다. 그 다음 다섯째 왕국은 1798년에 예언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교황 로마이다. 그 역사적 시점에서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인 미국이 왕좌에 올랐으며,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에 의해 폐위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

그때 유엔은 전 세계를 강제로 굴복시키는 권세에 의해 짐승의 우상을 세우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그 시점에 여섯째 왕국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미국은 그때 유엔에 대한 자국의 지도력을 전 세계가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또한 전 세계가 삼중

연합을 다스리는 교황권의 도덕적 권위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은 그 이적들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사는 자들에게 칼에 상처를 입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13:13, 14.

영감의 기록에서 '짐승의 형상'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그것이 교회(교황권)와 국가(유엔, 그리고 미국이 다른 아홉 왕들을 지배함)의 결합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세벨은 교황권이며, 아합은 북쪽 열 지파의 왕인 미국이다.

일요일 법령에서 미국이 넘어질 때, 1798년 이래로 잊혀졌던 두로(교황권)가 '기억된다'고 표현되며 그녀는 유혹적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엘렌 화잇의 저술에서 '국가적 파멸'로 표현된 금융 붕괴로 인해, 미국은 전 세계를 한데 모아 그를 대적하여 모든 사람의 손을 한데 모으는 성경적 세력에 대응하도록 강요받는다. 그 세력은 이슬람의 시조 이스마엘로 대표되는 이슬람이다.

여호와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잉태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난을 들으셨음이라. 그는 거친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도 그를 대적하리라. 그는 그의 모든 형제들 앞에서 거하리라. 창세기 16:11, 12.

미국은 다른 아홉 왕들과 동맹을 맺고 주도권을 잡는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며, 그 후에는 교황 권력이 모든 것의 수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는 이세벨이 아합을 지배했던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이 함께 아마겟돈으로 나아간다. 숫자 여덟은 부활을 상징하며, 예언에 의해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것으로 언급된 왕국은 다섯째 왕국, 곧 교황권이었다. 교황권이 부활하면 그들은 여덟째 왕국이 되고, 삼중 연합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그 여덟째 왕국은 일곱 왕국 가운데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바로 그 한 머리이며, 영감은 또한 그 치명적인 상처의 치유도 지적한다.

"마지막 위기가 다가올수록 주님의 도구들 사이에 화합과 연합이 있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세상은 폭풍과 전쟁과 불화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한 머리—곧 교황권—아래에서 사람들은 그의 증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연합할 것이다. 이 연합은 대배교자에 의해 굳게 결속된다. 그는 진리를 대적하는 싸움에서 자신의 대리자들을 결집시키려 하면서 그 진리의 옹호자들을 분열시키고 흩어 버리려고 일할 것이다. 그는 불화와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질투와 악의적 추측과 비방을 선동한다." 증언, 제7권, 182쪽.

그 시점에 다섯째 왕국, 여섯째 왕국, 일곱째 왕국은 모두 각자의 개별 왕국을 잃게 되며, 그 결과 그들의 왕국들은 함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왕국으로 부활하는데, 이는 신격의 삼중 구성을 거짓으로 모방한 것이다.

두 개의 어린양 같은 뿔로 시작하여 용처럼 말하는 하나의 뿔로 끝나는 여섯째 왕국은 짐승의 형상이 되므로 교황권의 예언적 특징을 지닌다. 일곱에 속했던 부활한 여덟째 왕국으로 주로 묘사되는 것은 바로 짐승, 곧 교황권이다. 그러나 '여덟이 일곱에 속한다'는 그 예언적 수수께끼를 가장 직접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교황권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교황권의 형상을 이루므로 예언적으로 교황권과 동일한 특징들을 드러낸다.

미국은 1798년에 시작되었는데, 이사야 23장에 따르면 두로, 곧 교황 권세는 여섯째 왕국의 끝까지 잊혀지게 되어 있었다. 1798년은 재림운동의 시작에서 밀러주의자들에게 끝의 때였다. 1844년 봄까지 밀러파 재림운동은 개신교의 사명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공화주의의 뿔과 나란히 간다. 두 뿔은 같은 짐승에 달려 있으므로 역사를 함께 걸어간다. 재림운동의 시작과 끝은 공화주의의 뿔과 나란히 간다. 1798년부터 개신교인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할 때까지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개신교의 뿔을 세우신 기간이었다. 그분은 공화주의의 뿔과 마찬가지로 시험하는 과정을 통해 그렇게 하셨다. 평행한 두 뿔에 관해 말할 것이 많지만, 지금은 다루지 않겠다.

공화주의의 뿔은 배도한 개신교와 음행하지만, 참된 개신교의 뿔과는 음행하지 않는다. 이는 참된 뿔이 어린양의 신부요 순결한 처녀이기 때문이다. 1989년의 마지막 때 이후 일곱 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그 대통령들 가운데 여섯째는, 재림주의의 마지막 때의 운동도 치명상을 입은 바로 그 해에 치명상을 입었다. 1989년 마지막 때 이후의 여덟째 대통령은, 치명상을 입었다가 치유된 자가 될 것이다. 그는 반드시 그 일곱에 속한 대통령이어야 한다. 동시에, 여섯째 대통령이 치명상을 입은 2020년에, 지금 개신교의 망토를 걸치고 있는 뿔도 죽임을 당했다. 가톨릭의 짐승과 마찬가지로, 배도한 개신교의 짐승의 형상과 마찬가지로, 참된 개신교의 뿔도 그러하다. 개신교의 뿔은 여섯째 교회로 묘사되며, 여덟째가 되지만, 일곱에 속한다.

이 주장들을 검토할 때, 은혜의 시기가 닫히기 직전에 봉함이 풀리는 그 기별은 시작이 끝을 보여주는 맥락 속에서 반드시 제시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별은 성경의 역사를 세계사와 맞추어 세상의 종말을 식별하기 위한 "역사주의"라는 방법론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그 기별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정녕 주께서 선한 것을 주시고, 우리의 땅이 그 소산을 내리리라. 의가 그의 앞을 가며, 그의 발자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리라. 시편 85:11-13.

그 구절에서 대지가 단지 "땅"으로 규정된다는 것만은 아니다. 시편의 그 구절은 "땅"을 요한계시록 13장의 "대지"의 짐승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진리"가 대지에서 "솟아난다"는 점도 언급한다.

신세계에서 1798년에 세력을 키우며 힘과 위대함을 예고하고 세계의 이목을 끌던 나라는 어느 나라였는가? 그 상징의 적용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예언의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단 하나뿐이며, 그것은 분명히 미합중국을 가리킨다. 이 나라의 부상과 성장을 묘사하면서 연설가와 역사가들은 성서의 저자의 사상, 거의 그대로의 표현까지도 무의식중에 거듭 사용해 왔다. 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보였고, 번역자들에 따르면 여기서 '올라오다'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 그대로 '식물처럼 자라거나 돌아나다'를 의미한다. 위대한 논쟁, 440.

미국은 “솟아오르는” 땅의 짐승이다. 그러므로 이 글들에서 제기된 주장들을 검증할 때, 영감에 따르면 그 메시지는 시작으로 끝을 예증하는 원리에 기초해야 하고, 역사적 선위에 역사적 선을 쌓아 올리는 문맥 속에 놓여야 하며, 반드시 미국에서 나오는 목소리여야 한다. 물론 미국 안에도 거짓 목소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르면 미국 밖에 위치해 있거나 그 기원이 미국 밖에 있는 어떤 사자나 사역도 거짓 빛이다. 재림주의는 미국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와 미국에서 세워진 운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의 시작으로 그 끝을 예증하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